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반대파를 다룰 줄 아는 지도자 II

(느헤미야 5장 1-19절)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느헤미야의 단호한 결의와 위대한 지도력으로 온 백성은 회개하고 바른 행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12절) 느헤미야는 그들의 서약을 받고, 옷자락을 찢어서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 집과 산업에서 이처럼 찢어 떼어버릴 것(철교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 1 - 4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아닥사스다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밤중에 정확한 조사를 하는 한편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고 전문적 지식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느헤미야 4 - 6장에는 반대파에 부딪힌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의 일을 조소하는 반대파들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침략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지도자가 반대에 부딪힐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반대자가 없으면 지도력도 빛나지 않는 법입니다.

1. 예기치 않은 반대

느헤미야는 내부의 적(이스라엘 백성)의 반대 부딪혔습니다. 동료간에 비전을 서로 나눌 수 없을 경우는 외부의 압력보다 더 힘든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하나가 되었으나 편안해졌을 때 오히려 내부의 적들이 생겼습니다.

중세기를 암흑기라 합니다. 이때는 교권이 최고로 팽창했으나 교회는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량주의, 탈기독교적 현상 등 경건을 상실한 교회 내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부의 적, 그것은 덜 가진 이들의 불평이었습니다.(1 - 5절) 소위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무서운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금, 은 기명의 도합이 오천 사백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스1:11).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잘 살았습니다. 에스라 1장에 의하면 이들은 세상적인 것에 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모든 것을 돌려주었고(스1:7),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를 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다고 불평한 것은 기근으로 인한 흉작 때문입니다. 비가 오질 않아 곡식을 얻지 못했습니다.(3절) 또한 왕의 세금과 이자 제도 때문에 백성들은 땅을 전당 잡히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를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9절).

2. 이 같은 경우 지도자의 할 일

(1) 느헤미야는 분노했다(6절)

그가 노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의를 위한 경건한 자의 노를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를 반대한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해 노를 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2) 저들을 꾸짖었다(7절)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출22:25).

“빈한한 동족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며”(레 25:35-37, 39-41).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신 23:19).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자를 못 갖게 되면 농노,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3.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 개인적 충고를 받지 않는 이들을 고치려 했다(7절)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성 쌓는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원수들이 더욱 방해하기 전 완공을 해야 할 절박감에 부딪혀 있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쉬임없이 일하던 백성들의 일을 멈추게 하고 대회에 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갱신, 회개 운동이 교회가 할 선결 문제입니다.

(1)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회개했다

당시 귀인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영감 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것은 그 당시 법이고 오늘 나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자신의 이권만을 쟁긴 것을 회개 했다

당시 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것으로 부를 즐겼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와 같은 명예를 벨 때 경건하고 의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가난해지거나 낮고 천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벽을 높이 쌓기 전 벽의 내부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단호한 결의와 위대한 지도력으로 온 백성은 회개하고 바른 행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12절) 느헤미야는 그들의 서약을 받고, 옷자락을 찢어서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 집과 산업에서 이처럼 찢어 떼어버릴 것(철교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14 - 18절). 그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아닥사스다왕으로부터 녹을 받지 않았고(14절), 토색하지도 압제하지도 않았습다(15절). 땅을 사지도 않았고 자기 자식들도 성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16절). 그는 백성들과 함께 먹고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18절).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15절).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려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 암송 · 필사성경 제작 봉헌 한다

헌당식에 맞추어 6월6일부터 필사착수

5월29일까지 신청자 접수

오는 11월27일 교회설립 14주년에 맞추어 예배당 헌당을 감사하기 위한 14개 헌당감사 행사의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직접 암송하고 필사하는 대형 '서울 암송 필사성경' 2권을 제작, 하나님께 봉헌키로 하였다. 이에 교회는 봉헌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를 구성하여 지난 5월10일 첫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 날 이종윤 목사는 시편 119:92-93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이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요지로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흥해작전 기간 동안 필사본을 완성하여 헌당식에 맞추어 봉헌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도: 오정식 목사 위원장: 김세재 장로 고문: 당회원 전원
- 기획팀: 노문환 장로 차장: 오광환 집사, 김시환 집사
- 진행팀: 민순구 장로 차장: 최광성 집사, 윤숙희 집사
- *진행1팀(1-7교구성도, 고등부, 청년부:870명): 정병무 장로
- 구약1부(구약 1-440면: 435명)-김영주 정동학 집사
- 구약2부(구약 441-880면: 435명)-장양일 유을상 집사
- *진행2팀(8-14교구성도, 중등부, 대학부: 847명): 윤찬오 장로
- 구약3부(구약 892-1331면: 432명)-오형철 이양철 집사

이에 위원회는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원본의 소실 등을 대비하여 동일한 성경 2권을 동시에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는 5월29일까지 교구 및 다락방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고, 6월6일 당회원 전원과 위원회 임직원 총 66명이 참여하여 성경 66권의 첫 면을 동시에 필사를 시작하여 광복 60주년인 8월15일까지 필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념으로 한정 발행되는 축쇄판 성경은 전 세계 유명 도서관으로 발송되며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한 권씩 기념으로 보관하게 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를 바란다

·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신약부(신약 1-423면: 415명)-이계홍 조동완 집사
- *진행3팀(구약 881-891면, 유년부 초등부)- 김복승 김광룡 집사
- 감수위원: 50명(교구간사 외)
- 필사위원: 5명(추후임명)
- 중보기도팀: 조정식 장로
- 차장: 황정임 권사, 우지원 집사
- 지도위원:10명(추후임명)
- 출판팀: 권혁달 집사
- 차장: 탁경준 집사, 정치은 집사

교회설립 14주년 헌당식 감사 축하행사 추가된다

서울찬양축제와 전야제

우리교회는 교회설립14주년을 맞아 대치동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며 이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열두 가지 행사를 갖기로 하고 이를 지난 5월1일자 순례자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 두 가지 행사를 추가하여 14대 행사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가되는 두 가지 행사는 다음과 같다.

- ① 연합찬양대 찬양축제(서울 찬양축제)
 - 일시: 11월 25일(금) 저녁7시
 - 장소: 본당 · 찬양대: 서울교회 모든 찬양대원
 - 지휘: 박정선 장로(헌당을 위한 작시 곡곡을 하여 9월부터 연습시작)
- ② 청년들이 노래한다(행사전야제)
 - 일시: 11월26일(토) 오후5시
 - 장소: 본당 · 주관: 헬시바, 대청부

제13차 KIMCHI 신학세미나 열린다

7월5일(화) - 10일(주)까지 6일간 우리교회에서

올해로 열세 번째 열리는 KIMCHI(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신학세미나가 오는 7월5일부터 10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올해에는 세계개혁 신학회 제6차 회의를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이 후원함으로써 한국에서 갖게 되었다. 금번 KIMCHI 세미나는 "다원적이며 국제적인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네덜란드, 미국, 독일, 영국, 헝가리, 호주, 남아공화국, 인도네시아, 케냐,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100여명의 신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에 있다.

세계선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이미 세계로잔위협회의 인정을 받고 외국의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상호신앙과 신학의 영향을 주는 KIMCHI 신학세미나는 지금까지 81개국에서 510명이 참여하였다.

대학,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

"Here I am to worship"

5월28일(토)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5월의 마지막 토요일(5월 28일 오후5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가 열린다. 어느 찬양집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을 열정과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이번 집회는 새로운 세대의 춤과 노래, 다양한 장르의 워십 찬양을 통해 하나님 찬양의 기쁨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신선한 문화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부 헬시바 남성 찬양단과 아멘 관현악단이 협연하여 더욱 풍성한 찬양의 잔치가 될 이번 찬양집회에서 드러지는 모든 헌금은 이번 여름 단기 선교팀의 재정 후원에 쓰이게 된다.

2005년 1차 중등부 성경암송대회

오늘 501호에서

중등부는 5월 22일(주일) 501호(중등부실)에서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치르게 되는 이번 대회의 암송범위는 빌립소서 1장이며 범위를 늘려가면 서 이후 두 차례 더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를 앞두고 학생들의 참여 확대와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이번 중등부성경암송대회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바란다.

2005년 흥해작전 위원추가 임명

- 안내참모부: 김관홍 김은태 조원섭 최명수 최홍열 집사
- 봉사참모부: 이인숙 이순희 김영식 황정임 흥재식 이영희(민) 권사
- 홍보참모부: 우지원 집사

금주의 성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ohn 14:16-17 [NIV])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홍해작전은...

호국의 달 6월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후손들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크리스천에게는 민족사회의 지나온 자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더욱 돌아보아야 할 소중한 시기이다. 우리 교회가 매년 시행하는 홍해작전의 의미 가운데는 이 같은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홍해작전은 현충일인 6월6일에 시작해 6월 25일 6.25사변 기념일까지 전개된다. 이 기간 동안 서울교회 전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정한 공동기도제 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고 깊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진다.

우리 교회는 창립이후 1992년 봄부터 매년 홍해작전을 전개해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도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매일 평균 참석인원이 5백 명에 육박하고 한해 참석 연인원이 8천명을 넘고 있다. 특히 10여년의 세월동안 예배당 건축과 외환위기 사태, 복핵문제 등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앞에 놓고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안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성도들

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일대에서 홍해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새벽 3-4시에 일어나 집을 나섰고, 아예 교회주변 성도의 집에서 묵는 경우도 있었다. 비단 장년층 성도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하고 있어서 홍해작전은 명실공히 서울교회의 특유한 기도 문화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김치세미나 (KIMCHI세미나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는 대개 홍해작전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많은 해외의 교계 지도자들도 이 홍해작전에 참석해 한국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 자국에서도 이를 계승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교회 내적으로도 헌당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서울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홍해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서울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며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교회는 촉구하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장로기정탐방 - 이복규 장로기정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복규 장로님은 한평생 권사님과 슬하에 유학중에 있는 종훈, 호정 남매를 두고 계시다. 장로님은 세종대왕의 18세손으로, 대대로 유교적 가풍이 막강한 경기도 파주의 집성촌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는데, 대소가를 통틀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복음에는 척박한 환경이었다. 처음 믿은 장로님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신앙의 동역자인 한 권사님의 뜨거운 믿음이였다. 복음을 전하기에 그 담이 높기만 했던 집안에 권사님의 극진한 호도와 전도에 힘입어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몇 개월 전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신 데 이어, 그 해 큰어머니도 하나님을 당신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돌아가신 두 분께서는 손 자녀들에게 물려서 못 믿은 과거는 어찌할 수 없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으니 너희들은 꼭 믿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장로님부부의 신앙생활을 지켜본 골육의 친척들이 하나 둘 복음에 마음 문을 열고 있다고 하니 실로 복음의 밀알 된 가정이 아닐 수 없다.



신앙생활을 시작 할 때 장로님은 주일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1995년 3년 여 부산에 근무 했을 때 주일성수를 위해 비행기를 탄 기록이 400회를 넘길 정도였다. 이 장로님은 서울교회의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지체들과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기는 기쁨 그리고 신비함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선물로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며 가장 행복 한 것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장로님 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지난해 회사를 설립하여 매일 직원들과 함께 말씀 묵상과 찬송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이 장로님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교회가 논현동에 머물던 시절, 지체 장매 우들을 돌보는 사랑부 창설과 함께 4년 여 동안 부감으로 섬겼을 때 당시의 학생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멀리서도 달려와 안기는 것을 보며 서울교회도 이젠 어엿한 청년의 시절이 도래하지 않았나 새삼 감회에 젖는다고 하신다. 한결같은 미소로 성도들을 섬기는 한평생 권사님은 몸이 연약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케 된다고 하신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빌 2:5). 언제 어느 곳 에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받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올해 2교구 교구장과 시온찬양대 대장, 장년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 언제나 말없이 충성하시며 우리의 참 이웃이 되고 믿음의 선배 되시는 장로님 가정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린다. 나소정(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처음으로 전도를 해보니...

박아리(청년부 78포럼)

지난 주에 처음으로 노방전도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작정 교회에 간다는 기쁨으로 토요집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노방전도? 아... 교회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시던 분들? 오늘 내가 그걸 해야 한다고? 혹시나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찌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결려하고 답대하게 시작했어야 하는 전도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버스정류장에 세워지는 버스안의 사람들의 시선들이 두려워 난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내 눈치작전만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며 많은 학생들을 정말 동체형, 누나처럼 대하며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며 데려오는 청년부 지체들을 보면서 난 정말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오직 웃는 모습으로 당당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안 사람들, 창문을 내리고 우릴 쳐다보는 수많은 운전자들의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가족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울컥해지며 '아!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지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진리, 중요한 삶의 목적은 알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야외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한 번 주지 않고, 고작 '이야 대단한 사람들 이네'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한 마디 내뱉으며 마치 예수에 정신이 나간 사람들 정도로 취급했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귀한 사역의 위치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렇게도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노방 전도는 참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무작정 '난 초신자니까, 나만 라포서면 돼. 전도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나로서는 큰 깨달음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하면서 왜 바로 결에 서게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형제, 자매님들수와 많으셨습니다. 주안에서 모두 사랑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전도학교를 수료하며

박천희집사(11교구)

13기 전도학교를 수료한 저는 다락방장으로서 33년간 교사로 재직 중이고 모태신앙인입니다.

3년전 다락방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솔직히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80여 평생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주의 은혜로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한 영혼이 주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과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낙심치 않으면 주께서 결국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사는 잠실 우성아파트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이선집사님과 함께 축호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전도하

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다락방장의 책임과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또 집사님의 권유로 13기 전도학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받는 동안 전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학교근무 후 우성아파트를 축호전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렵고 발이 무거웠습니다. 전도시작하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였고 여러 번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식구 중 믿지 않는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희 다락방 식구인 비집사님의 딸은 고3때 한두 번 교회에 나오다가 그 후 다니지 않았지만 수차례 방문하고 권유하여 현재 어머니님과 함께 9시 가족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9세인 서00씨는 그간 방문할 때마다 바쁘다거나 손님이 있다면서 문을 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오늘

은 꼭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면서 꼭 기다리던 사람처럼 "예수를 믿겠다.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분의 동생 되시는 분도 함께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대학선배를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그 집을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보니 병의 상태가 심해 예수를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도훈련을 받는 동안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 날 저의 방문을 받고 선배는 감사해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조건을 주께서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전도훈련 받은 대로 5단계 복음제시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선배는 "예수 믿어, 응 믿어"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결신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셔서 전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교회의 부흥과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시민양성

서울 성경대학을 종강하며

사사기를 마치며

주부대학을 마치고

김미경 성도(13교구)



보잘 것 없는 인간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며 우리의 마음을 삶에 윤택하게 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심판 받으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순환과정은 구약 시대의 유대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불행하게도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개인적 생활 속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사기(士師記)에 나오는 인물, 사건들을 통해 매번 배움을 얻으면서도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김없이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열강하신 이규정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전숙향 집사(12교구)



2년 반 전 처음 제가 주부대학 신입생이었을 때 30여명 정도이던 수강생이 2005년 9학기에 접어들면서 104명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신의 은혜를 느낍니다. 주부대학은 해가 갈수록 다양하고 알찬 강의와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 상식 등 주부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더욱이 이번 학기의 음악(오페라 라보엠) 프로그램과 영어 에세이(시인 예이츠의 세계)는 그야말로 서울교회의 주부대학이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동안 안 잊고 있던 저 밑바닥의 감성을 새삼 일깨워줌에 감사하며 가슴진한 감동에 눈물을 흘렸으며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부대학을 섬기시는 한상은 목사님, 신용식 장로님, 그리고 남태순 권사님의 정성스런 손길은 '섬기기를 다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본을 보여주셔서 저희 수강생 모두가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펼쳐지는 야외수련회는 또 얼마나 신나고 즐거우는지, 한 번 참석하면 안 오고는 못 배기는 묘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주부대학은 또한 전도의 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005년 봄 시즌 제3회 화요정오음악회

한은미

- 이화여자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 베를린 예술대학 졸업
- 영국 런던왕립음악대학 졸업 (ARCM)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박사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
- 영락교회 오르가니스트

등정

■ 다녀: 임성훈 성도 정유경 성도 가정(2교구)
송영준, 이영선 성도(11교구) 5/17(화)

■ 이사: 전수자 권사(12교구) 송과구 거여동 현대아파트 T. 448-6124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여전도회(5월22일) 한나여전도회(5월 29일)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해외에서 강의와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중윤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
2. 6월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05홍해작전에 은혜받고 승리하도록
3.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4.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5. 북한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미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